

액션러닝을 활용한 노인간호학실습 수업 운영의 효과

권상민¹, 권말숙^{2*}, 박지연³

¹영남이공대학 간호대학, ²경운대학교 간호대학, ³경성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a gerontological nursing clinical practice course using action learning o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ang Min Kwon¹, Mal-Suk Kwon^{2*}, Jee-Yeon Park³

¹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Kyungs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간호학실습 교육에 액션러닝의 팀 학습 방법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팀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2015년 3월 9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Y대학 간호학과와 노인간호학 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간호학과 3학년생 전체를 편의표집 대상으로 하여 실험군은 A, B병원으로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 중에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 40명, 대조군은 동일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 가운데 실험군과 겹치지 않는 병원(C, D, E병원)에 실습을 나가는 학생 40명을 선정하여 액션러닝을 2주간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하여 일반적 특성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χ^2 -test, t-test, 실험처치 효과에 대한 검증은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액션러닝을 적용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팀 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액션러닝은 간호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교수학습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 gerontological nursing clinical practice course using action learning o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75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from Y Universit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problem solving ($t=3.58$, $p<.001$) and communication ($t=4.15$, $p<.000$)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gerontological nursing courses improv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ly, this course would be a usefu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n nursing programs of outcome based curriculum.

Keywords : Action learning, Gerontological nursing,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Teaching metho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건강관련 문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응용학문으로[1] 임상실

습은 배운 이론을 현장으로 확대하고 이론에서 익힐 수 없었던 간호 기술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직접 실무에 적용해 봄으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2]. 즉 학습자들은 미리 학습한 지식을 실제

*Corresponding Author : Mal-Suk Kwon(Kyungwoon Univ.)

Tel: +82-54-479-1381 email: ms601626@hanmail.net

Received April 4, 2016

Revised (1st April 19, 2016, 2nd May 2, 2016)

Accepted May 12, 2016

Published May 31, 2016

임상실습현장에 적용해봄으로 비판적사고 능력을 활용한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과 간호사의 핵심간호역량을 제시하고 있어[3], 각 대학은 대학마다의 건학이념과 철학정신에 근거한 교육과정과 학습성과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이미 활용되고 있는 문제중심 학습 외에 웹기반 학습, 블렌디드 러닝, 팀 기반 학습,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협력학습, 액션러닝 등이 대두되고 있다[4].

이 중에서 액션러닝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동료 학습자와 함께 과제나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는 수업방법으로, 학습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질문, 피드백 및 성찰 등을 통해 문제해결과정을 학습하게 된다[5]. 액션러닝은 학습자로 하여금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수업 목표 달성, 팀워크, 올바른 질문과 문제 상황에서의 실행력, 비판적 성찰, 강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6]는 점에서 성과중심교육에 매우 적합하다.

액션러닝은 1990년대 이후 기업의 경영혁신 프로그램,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현장중심학습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리더십 개발과 생산, 영업 현장의 경영혁신 프로그램,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7], 문제해결, 역량개발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8]. 이러한 경영학 분야의 액션러닝 성과로 대학에서 교양분야, 인문학, 교육학 등 다양한 수업에 적용하게 되었고 간호학 분야에서는 임상간호현장에서 먼저 액션러닝 도입이 시작되었다[4]. 또한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 이론 및 실습교육, 근거기반간호 수업, 다문화 간호교육 수업에서 액션러닝을 적용하여 문제해결능력, 팀효능감, 정보활용능력, 문화적 역량,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5,9].

우리나라는 2030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다[10]. 노인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며 노인 간호 분야에 서 활동할 수 있는 간호사 인력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

가하고 있으나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요양병원에 대한 취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10]. 또한 본 교과목을 운영한 결과 노인간호학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노인 환자와의 의사소통의 문제나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미래의 건강제공자인 간호학생들에게 액션러닝을 적용한 노인간호학실습을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함양과 함께 협동학습을 통해 본인들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나아가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봄으로 졸업 후 취업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간호학 임상실습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노인관련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후 문제를 해결해가는 액션러닝의 팀학습 방법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액션러닝을 활용한 노인간호학실습 수업운영방식이 간호 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팀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1.3 연구 가설

- 가설 1. 액션러닝을 활용한 노인간호학실습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2. 액션러닝을 활용한 노인간호학실습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3. 액션러닝을 활용한 노인간호학실습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팀효능감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학실습 교과목에 액션러닝을 적용한 후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팀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5년 3월 9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Y대학 간호학과와 노인간호학 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간호학과 3학년생 전체를 편의표집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군은 A, B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 중에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 40명, 대조군은 동일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 가운데 실험군과 겹치지 않는 병원(병원 C, D, E)에 실습을 나가는 학생 40명을 선정하였다. 병원간의 거리가 멀고 일주일간 임상현장에서 실습이 이루어지고 이론 수업이 진행되는 첫 날에 집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bias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가 IRB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작성 전 및 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는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와 성적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수는 사후검사에 응하지 않은 실험군 3명과 대조군 2명을 제외하여 실험군 37명, 대조군 38명의 총 75명이었다. 표본 수는 G*power 3.0 program[11]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을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3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표본 수 75명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연구 도구

2.3.1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Lee 등[12]이 개발한 대학생/성인 문제해결능력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는 문제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 및 실행, 수행평가의 5가지 능력요소와 각 하위요소로 구성된 총 45문항이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Lee 등[12]이 개발한 대학생/성인 의사소통능력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는 정보수집

및 종합, 경청, 고정관념적 사고극복, 창의적/개방적 의사소통, 자기드러내기,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관점이해로 각각 7문항씩 총 49문항이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3.3 팀 효능감

팀 효능감은 Marshall[13]의 집단적 효능감 척도를 Kwon[14]이 수정한 팀 효능감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8문항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팀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4 연구 진행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3월9일부터 2015년 6월 19일 사이에 측정변수에 대한 사전조사와 2주에 걸친 실험처치 및 사후조사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팀효능감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교과목 담당 교수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연구대상자 전원에게 유인물을 통해 노인간호학 실습운영의 세부내용과 임상포트폴리오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실험군에게 액션러닝으로 운영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효과적인 팀 활동을 위해 팀원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발표자, 사회자, 서기를 모두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였고 모임 후에는 성찰일지를 기록하고 팀원의 역할과 기여도를 작성하게 하였다. 성찰일지는 개인 성찰일지와 그룹별 성찰일지로 나누어 1주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1회씩 작성하게 하였다. 그룹별 인원은 3-4명으로 구성되었고 팀별 다양한 기본 규칙(ground rule)을 정해 팀원들의 적극적 참여, 리더십, 팀워크와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각 그룹의 구성은 임상실습이어서 학번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효과적인 액션러닝의 진행을 위해 담당교수가 촉진자의 자격으로 소그룹 활동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메일, 전화, 면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문제해결 각 단계별로 소그룹을 지원하였고 문제해결 프로세스는 문제발견, 원인분석, 해결안 개발, 실행 및 검토의 4단계 방식으로 구조화하였다. 소그룹활동은

해당실습 단위와 간호대학 집단회실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액션러닝프로그램이 1주단위로 운영되어 대상자간의 오염을 막기 위해 주제선정시 이전의 실습조가 선정하였던 주제와 유사한 경우에는 다른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습 종료 시에는 개인종합 성찰일지 작성을 하였다. 성찰일지에는 1주간의 팀과제 참여를 통해 개인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 과정 속에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 향후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χ^2 -test,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실험 처치 효과에 대한 검증은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동질성 검증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37명, 38명으로 성별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여학생은 31명, 남학생이 각각 6명(16.2%), 7명(18.4%)으로 두 군 모두 여학생이 많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연령은 21.29세이고,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팀 효능감에 대해 실험군,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일반적 특성은 동질하였다[Table 1].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75)

Variables	Categories	Exp.	Cont.	χ^2	p
		(n=37)	(n=38)		
		M±SD or n(%)	M±SD or n(%)	or t	
Gender	male	4(10.8)	5(13.2)	.098	.754
	female	33(89.2)	33(86.9)		
age		21.18±1.37			
Problem solving		2.91±.53	3.11±0.51	-1.62	.108
Communication		3.25±.37	3.29±0.36	-0.49	.624
Team efficacy		3.31±.85	3.41±0.70	-0.55	.58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3.2 가설 검증

3.2.1 가설1

“액션러닝을 활용한 노인간호학실습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검증 결과, 실험군의 문제해결능력 점수 평균은 사전 2.92점, 사후 3.52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3.09점에서 3.15점으로 나타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t=3.42, p<.001)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2].

3.2.2 가설2

“액션러닝을 활용한 노인간호학실습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검증 결과, 실험군의 의사소통능력 점수 평균은 사전 3.25점, 사후 3.65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3.29점에서 3.34점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t=4.15, p<.000)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2].

3.2.3 가설3

“액션러닝을 활용한 노인간호학실습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팀효능감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검증 결과, 실험군의 팀 효능감 점수 평균은 사전 3.31점, 사후 3.42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3.41점에서 3.36점으로 나타났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t=0.46, p=.640) 제 3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2].

Table 2. Comparisons of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nd Team efficacy between Two Group (N=75)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	p
		Mean±SD	Mean±SD		
Problem solving	Exp. (n=37)	2.91±.53	3.51±.32	3.58	<.001
	Cont. (n=38)	3.11±.51	3.17±.48		
Communication	Exp. (n=37)	3.25±.37	3.65±.27	4.15	<.000
	Cont. (n=38)	3.29±.36	3.34±.36		
Team efficacy	Exp. (n=37)	3.31±.85	3.42±.48	0.46	.640
	Cont. (n=38)	3.41±.70	3.36±.6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간호학 실습교육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간호학생들이 문제발견에서 해결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액션러닝을 적용한 후, 대상자의 문제 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팀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연구에서 액션러닝을 적용한 후 문제해결능력을 살펴본 결과 액션러닝을 적용하고 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는 액션러닝을 임상현장 간호관리자 및 일반 간호사에 적용한 결과[15-17]와 일치하며 또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수업에 적용한 연구[1]와 간호관리학 이론과 실습에 모두 적용한 연구[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들 모두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능력은 교육적 중재를 받고 난 후 향상되었으며,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현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그 결과 학습자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액션러닝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액션러닝은 현장에서 문제로 인식되는 부분을 스스로 선택하여 팀원들이 해결방안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임으로 학습자들의 의지가 문제해결에 중요하다[1]. 또한 액션러닝의 출발이 현업의 전문가들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지식을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므로 초심자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지기에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18]. 즉 학습자들은 관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의 정의와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결정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현장에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제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선정 과정에서는 임상실습교수와 현장 지도자가 소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고 과제 진행 시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 이메일, SNS 문자등을 통해 학습자를 격려하고 온라인상의 토론에도 참여하여 촉진자로서 기능을 한 것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의사소통능력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액션러닝 프로그램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 다른 연구[15,19,20]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액션러닝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21], 동료 간에 듣고 질문하고 피드백 하도록 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게 한다[22]. 본 연구에서도 팀 역할을

분담하여 매 모임마다 역할을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였고, 시간적 제약을 받을 경우 SNS를 통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이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고 의견을 표현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의사소통능력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사회적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며[12] 의사소통능력은 팀원간에 신뢰감이 형성되고, 활발한 의견제시와 시간의 할애,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기술 활용 및 학습자들을 코칭하고 촉진하는 촉진자의 역할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20]. 병원 현장은 간호사들이 대상자의 건강 향상을 위해 타부서와 의사소통하고 협력해야하며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한다[23]. 다학제간 접근이 강조되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생기게 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간호학과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학습성과를 포함시키고[24]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증진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 이러한 관점에서 임상간호실습에 액션러닝을 접목하여 간호학생들이 환자, 간호학생들, 의료진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대상자들의 팀 효능감은 액션러닝 교육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실험군은 사전 3.31점에서 3.42점으로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사전 3.41점에서 사후 3.36점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관리학 강의와 실습 교육 후 팀 효능감이 증가하였다고 한 연구[4]와 웹기반 상황학습 후에 팀 효능감을 측정한 연구[25]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팀 효능감은 개인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 역량이나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믿음 혹은 자신감을 의미하며, 팀 역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집단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26] 1주의 짧은 임상현장 실습과 사전 교육, 컨퍼런스 동안 팀 활동이 이루어져 팀 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또한 액션러닝은 기업에서 과제수행을 보통 3-4개월 동안 진행하는데[27], 본 연구에서는 교과과정 일정에 따라 한 팀당 1주 동안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었

다. 실습기간 동안 문제를 선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완책으로 온라인상 토론방을 운영하였는데, 실습 시간이 아닌 개인 시간에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피로감을 유발시키고 짧은 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인 상에서 팀별 모임을 자주 하면서 팀원간의 의견조정이나 시간조정이 쉽지 않아 부담감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따라서 팀 전체가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해결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는 액션러닝[27]의 특징이 잘 구현되도록 촉진자인 교수자는 첫 번째 단계부터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팀 구성을 하고 학습자들의 요구를 수시로 파악하여 적시에 지원을 제공 한다면 학습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즉 단순히 암기하여 습득된 지식이 아닌 능동적 참여와 끊임없는 인지 활동을 통해 지식이 내면화되는 액션러닝을 노인간호학실습에 적용함으로써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여지며, 본 연구결과로 봤을 때 노인간호학 지식에 근거한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데 있어서도 액션러닝은 의미있는 수업방법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실무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액션러닝을 적용하였다. 액션러닝 적용 결과, 문제해결능력($t=3.58, p<.000$)과 의사소통능력($t=4.15,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있었으나, 팀 효능감($t=0.46, p=.64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액션러닝이 노인간호학실습 교과목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방법임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팀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따른다. 둘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팀 효능감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팀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촉진자의 역할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후속연구를 통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Y. M. Kim,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ction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6), pp. 312-322, 2010.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0.10.6.312>
- [2] I. Y. Cho,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6), pp. 3635-3647,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6.3635>
-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ey competencies and learning outcomes. Retrieved November 5, 2012, from <http://www.kabon.or.kr/HyAdmin/upload/goodFile/120121105102905.pdf>,
- [4] K. S. Jang, S. J. Park, Effects of action learning approaches on learning outcomes in nursing management courses.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4), pp. 442-451, 2012.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2.18.4.442>
- [5] Y. S. Kim, Y. J. Kim, The effect of the cultural competence in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by action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1), pp. 6527-653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1.6527>
- [6] S. H. Jang, Search on morality that Korean society requires: Focused on the case of teaching-learning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applying action learning, *Elementary Moral Education*, 36, pp. 111-142, 2011.
- [7] H. L. Roh, W. Y. Ryoo, The study for degree of transfer and identification of factors to facilitate transfer in the context of action learning.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Technology*, 20(3), pp. 137-174, 2004.
- [8] M. J. Marquardt, *Action learning in action: Transforming top companies are re-creating their leaders and themselves*, Jossey-Bass, 1999.
- [9] K. S. Jang, E. A. Kim, H. Y. Park, The effects of an evidenced-based nursing course using action learning o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1(1), pp. 119-128,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1.119>
- [10] S. M. Kwon, M. S. Kwon, O. G. Kwag,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2), pp. 1129-1136,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129>
- [11] F. Faul, E. Erdfelder, A.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pp. 175-191, 2007.
DOI: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12]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 [13] L. C. Marshall,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acy, teamwork, effort and patient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 2003.

[14] E. M. Kwon, The correlation among team efficacy, interpersonal understanding, preactivity in problem solving and team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10.

[15] K. S. Jang, M. Baek, Y. J. Choi, S. H., Ahn, S. J. Lee, J. Y. Sim, et al. An analysis of nurse managers's common fundamental competencies changes and responses to the application of the action 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3), pp. 424-433, 2006.

[16] E. J. Hardacre, J. Keep, From intent to impact: developing clinical leaders for service improvement. Learning in Health and Social Care, 2(3), pp. 169-176, 2003.
DOI: <http://dx.doi.org/10.1046/j.1473-6861.2003.00046.x>

[17] R. Diana, C. Hazel, A. Helen, Developing leadership through action learning. Nursing Standard, 16(29), pp. 37-39, 2002.
DOI: <http://dx.doi.org/10.7748/ns2002.04.16.29.37.c3177>

[18] Y. C. Kim, E. C. Lee, An effect of blended action learning program on the self directed learn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5), pp. 658-671,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11.658>

[19] Y. W. Kim, The effects of action learning program on common fundamental compete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 2003.

[20] Y. H. Kim, M. S. Kang, The effects action learning in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9(4), pp. 211-243, 2015.

[21] K. Wilson, K. Flower, Assessing the impact of learning environments on students' approaches to learning: Comparing conventional and action learning designs.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30(1), pp. 87-101, 2005.
DOI: <http://dx.doi.org/10.1080/0260293042003251770>

[22] H. Ingram, K. Biermann, J. Cannon, J. Neil, C. Waddle, Internalizing action learning: A company perspectives. Establishing critical success factors of action learning course. Inter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12(2), pp. 107-113, 2000.
DOI: <http://dx.doi.org/10.1108/09596110010307369>

[23] K. L. Rich, K. E. Nugent, A united states perspective on the challenges in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30(3), pp. 228-232, 2010.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9.10.015>

[24] Y. M. Kim, K. Jang, An action research study on the effects of a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professionalism course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1(4), pp. 123-147, 2014.

[25] Y. M. Lee, T. J. Kim, J. I. Kim, S. P. Jang, J. Y. Hong, The effects of task types and collaboration procedures on task performance and group efficacy in web-based situational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7(3), pp. 47-75, 2006.

[26] J. M. Lee, S. h. Yoon, H. S. You, Identifying predictability of team efficacy, metacognition on PBL(Problem-Based Learning) outcomes. Asia Journal

of Education, 13(1), pp. 105-123, 2012.
DOI: <http://dx.doi.org/10.15753/aje.2012.13.1.005>

[27] H. C. Bong, Do action learning for success. Seoul: Hangseong B wave, 2012.

권 상 민(Sang-Min Kwon)

[정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2009년 9월 : 대구 과학대 전임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암환자, 노인

권 말 숙(Mal-Suk Kwon)

[정회원]



- 1996년 8월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06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4년 3월 ~ 2013년 8월 : 대구 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

박 지 연(Jee-Yeon Park)

[비회원]



- 2010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 (간호학 석사)
- 2015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2014년 8월 : 경운 대학교 조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신체활동, 성인